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저주의 오류를 수정하는 일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새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계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을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6274 하나님과 거리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 된 관점....3
8384 이 땅에 삶의 목적을 아는 지식....4
7192 하나님의 끝이 없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6
5349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길 잃은 혼을 뒤따른다....8
8034 깨달음의 중요성....9
5256 겉보기에 사랑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10
3524 하나님의 큰 인내. 공의. 속죄....12
3657 심판의 날. 종말의 때의 악한 영....13
5983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14
3150 한 구원시대의 끝....15
5433 일찌기 죽는 일....16
7170 많은 죽는 일에 대한 설명. 저세상의 문이 잠김....17
7625 하나님의 공의는 속죄를 요구한다....18
3619 구원의 과정. 영원. 지옥과 저주....20
6638 지옥의 개념. 새로운 파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21
7591 영적인 죽음으로 인한 새로운 파문....22
7644 영적인 죽음과 새로운 파문....24
7279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다....25
1137 영원한 멸망. 존재하지 않는 것과 구속받지 못한 존재....27
6420 영원한 저주. 빛. 루시퍼의 의지?....28
6155 영원한 저주는 없다....29
5593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30
8443 어떤 것도 영원히 구속되지 못한 상태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31
7910 영원한 심판은 잘못 된 가르침이다....33
8042 하나님의 큰 사랑....34

하나님과 거리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 된 관점.

B.D. No. **6274**
1955 년 6 월 3 일

사람과 하나님의 간격이 항상 더 커지고 있고 때가 항상 더욱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간격을 줄인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사랑을 행함으로 생명이 깨어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두려움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들은 종말이 와야 하고 왜 와야 하는 지를 알고 그들에게는 종말이 저세상의 나라이나 새 땅의 낙원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종말이 혼에게 멸망이 되지 않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거리를 줄여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과 거리는 피할 수 없게 영적인 입자들이 굳어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영적인 입자들이 가장 굳은 물질로 변형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거리는 무기력을 의미하고 행동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를 굳은 물질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의 힘이 대항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흘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완전히 힘이 없고 그가 저항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까지 영원한 기간동안 힘이 없는 상태로 머물게 된다.

인간으로서 너희는 힘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운명을 맞이하는 일을 불가능한 일로 여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진 떨어져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지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고 너희의 사명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고 이로써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 운명 외에는 다른 운명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 않는 동안에는 비록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가 너희에게 아주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를 기억하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행동과 생각이 세상일로 향하고 하루를 세상 염려와 세상적인 일로 시작하고 끝을 낸다. 그들에게 생명을 준 분을 위해 남은 시간이 없게 된다. 그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을 제외시키고 적은 경우에 공개 예배에 참여하는 일로 만족한다. 왜냐면 이런 예배 참석이 그들에게 전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명이 없고 사람들 안에 영이 없다. 왜냐면 그들 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고 그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안에 영이 거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랑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줄이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거리를 거의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지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의 정도를 통해 하나님과 거리가 항상 더 커지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종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통해 스스로 종말이 다가오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에 삶의 목적을 아는 지식.

B.D. No. **8384**
1963 년 1 월 18 일

오 | 제 진리에 합당한 영적인 지식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런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너희에게 전해지게 하는 데에 내가 항상 관심

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결과가 없이 이 땅에 삶을 마치게 되지 않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할 때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안에서 너희 자신에 관해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에 관해 너희에게 설명을 해주는 작은 빛이 밝혀져야만 한다고 항상 또 다시 말한다. 이런 작은 빛이 너희 자유의지를 언제든지 강하게 해서 너희 안이 밝게 되고 너희가 어떠한 영적인 어두움의 부담을 받지 않고 깨달음이 항상 증가되고 너희는 안전하게 이 땅에 너희의 목표 도달하게 한다.

너희의 목표는 너희의 성품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너희가 축복 되었던 너희의 원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빛을 선물해 주는 것은 벌어드리지 않는 은혜이다. 왜냐면 너희는 한때 의식적으로 이 빛을 거부했고 이로써 나를 떠나갔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렇게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너희는 나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 된 영인 루시퍼 처럼 전적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으로 느끼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너희는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자신을 강한 자라고 나타내며 나를 권좌에서 내려 가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첫 번째로 창조 된 자의 영향력 아래 항상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 그는 그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가 나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 갔다. 왜냐면 제한이 없이 나로부터 그에게 흘러가는 능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능력이 그의 생각에 혼돈을 주었다.

왜냐면 그는 나를 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타락하게 만든 원인인 죄악 된 잘못 방향을 잡은 의지가 그에게 영적인 어두움을 주었다. 그는 나로부터 벗어나게 될지라도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머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는 것은 항상 사랑의 힘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이런 저항을 통해 그 효과를 잃기 때문이다. 그 주변에 어두움이 더욱 깊어져 갔다.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그의 의지로 창조한 존재들도 같은 상태에 도달했다. 이 존재들도 그를 따르게 그에 의해 강요받지 않았다.

이 존재들은 자신들이 내 능력으로 생성되어 나온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아주 커서 존재 스스로 죄 값을 치를 수 없게 되었다.

만약에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런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버리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지 않았으면, 이런 죄는 영원히 긴 이 땅의 창조물들의 과정을 거치는 이 죄짐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죄로 남게 되고 절대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단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아주 큰 사랑을 드린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짊어

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죄를 해결했다. 인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 주었다.

나는 그들을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끌어올렸다. 모든 영원까지 모든 존재에게 향하고 향하게 될 내 아주 큰 사랑이 이런 긍휼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 사랑은 죄악 된 인류에게 은혜의 선물을 다시 제공했다. 그들은 단지 이 선물을 영접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자유의지로 인정하고 영적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 스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고 그에게 죄짐을 가져가야만 한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의 피를 흘리기를 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 안의 나 자신을 다시 인정해야만 한다.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거절하고 나로부터 떠나간 것처럼 그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잘못 된 의지가 올바르게 바뀌게 될 때까지 영원히 어두움과 불행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모든 진리 안에서 전해줘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게 나에게 향하는 귀환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올바른 의지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빛과 축복의 나라에 영접이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지은 죄짐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끝이 없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

B.D. No. **7192**
1958 년 10 월 22 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영원한 기간 인도했다. 이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인내로 너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싸웠다. 왜냐면 너희는 영원한 기간 동안 너희의 사랑없음이 만드러낸 먼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 사라질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은 너희의 자유의지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켜 너희 성품을 전적으로 반대로 바꿀 수 있었던 자유로운 창조 된 존재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이렇게 행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성품도 반대가 되었고 온전한 상태에서 반대의 상태로 바뀌었다. 존재들은 능력과 빛을 잃었고 이로써 그의 자유를 잃었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었고 능력으로 남는다. 그러나 존재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불길의 빛의 불씨였고 실제 무한 가운데로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

사랑의 빛의 불씨는 그의 빛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있게 되었고 서서히 굳어진 입자가 되었다. 이 입자들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한때 가졌던 정함받은 바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일하는 생명을 갖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존재는 이제 자신에게서 생명을 스스로 빼앗았다. 존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능력과 빛을 사용할 능력을 스스로 없게 했다. 왜냐면 존재가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존재는 더 이상 소멸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생성 된 존재가 이런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질서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상태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가 자신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존재의 상태가 그러한 것처럼 존재가 굳어진 영적인 입자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운데 거하면, 존재에게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에 들어설 능력이 전혀 없다. 존재는 한 존재로써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잃었다.

존재는 단지 가장 작은 변화라도 자기에게 일어나게 하려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죽은 영적인 덩어리가 되었다.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존재를 돕는다.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거부할 수 없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이런 성공에 도달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왜냐면 최종적인 귀환은 성장 과정의 한 특정한 단계에서 존재에게 되돌려준 그의 자유의지가 다시 자신의 자세를 천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정한 단계 도달하게 되는 일은 도달하지 못하면, 영원히 끝 없이 떨어진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는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커다란 긍휼의 역사이다.

그들이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거하게 되면,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때 타락한 한 존재가 다시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또는 능력의 불씨들로 분해되었고 이 들이 모여 다시 자신을 의식하는 한 존재가 되는데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필요함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성장 과정의 전 단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모든 능력의 불씨를 담고 있는 형체가 바뀌는 일들이 있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 모든 창조물들이 너희가 볼 수 있는 창조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창조물들의 겉형체이고 성장이 진전됨에 따라 항상 더욱 원래 창조 된 존재의 입자들을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다시 모든 원래의 영에 속한 입자들이 모여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이런 원래의 영의 의지의 시험인 존재가 자신의 사랑을 드리고 다시 그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로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만 하는 입자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일을 이해해야 한다.

이 일이 바로 너희가 인간으로서 전적인 자유의지로 해결해야 하는 너희의 과제이다. (1955 년 10 월 22 일) 이 과제는 아주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면 실패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이 다시 영원한 기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포로가 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존재가 새롭게 될 수 없지만 입자들로 분해되어 굳은 형체 안으로 묶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아주 끔찍해 어떤 사람도 그가 단지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면,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가르침을 통해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가르침을 통해 아주 작은 깨달음을 존재에게 줄 수 있지만 단지 희귀하게 믿음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바로 이런 사랑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빛을 주려고 시도하고 어두운 영역에 빛을 비추어 주려고 시도한다. 이 사랑이 항상 단지 사람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를 느끼고 이 존재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정도로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해주려고 노력한다.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귀환하는 목표는 확실하게 성취 된다. 사람의 이 땅의 운명적인 과정이 이 목표로 인도할 수 있다.

왜냐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가할 수 없는 지혜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영적인 이 땅의 과제를 의식하는 내적으로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작은 깨달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강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의 능력을 행사하는 일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에게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뒤따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젠가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한다. 모든 존재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에게 향한다. 그러나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저항을 포기할 때를 정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길 잃은 혼을 뒤따른다.

B.D. No. **5349**
1952 년 4 월 1 일

내 사랑과 은혜는 경계를 알지 못하고, 내 긍휼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향한다. 나는 무한한 인내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뒤따르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의 죄를 감당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려고 시도한다. 나는 혼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려고 시도하고, 아직 나에게 심하게 대항하고, 아직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면 내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떠났을 지라도, 내가 내 피조물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의 아버지로 머물고, 내 자녀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뒤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향한 내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 땅의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멸망에 빠지게 하기를 원하는 내 대적자에게 빠질 위험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사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눈이 먼 가운데 멸망에 빠진다. 왜냐면 그들이 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눈과 귀를 단지 세상을 향하게 하고, 내 대적자가 세상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훈계와 경고의 부름을 점점 더 긴급하게 들려줄 것이고, 나를 떠난 배신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부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부름이 강력하게 들리고, 나와 내 권세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사랑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아직 내 사랑이다. 왜냐면 내가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모두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먼 길을 걸었고,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이 넘치는 길이었고, 나에게 향하는 길의 짧은 부분이 단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기 직전에 돌아서면, 그들이 끝없이 먼 길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시 그들의 운명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에 맡긴다. 그러나 내 음성이 종말의 때까지 들리게 될 것이고, 내 음성이 조용하고 적게 들리기 때문에 들지 못한다면, 나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할 것이고, 그들은 들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사람은 아직 내 음성에 순종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구름에서 말하지 않고 자연의 원소를 통해 말한다.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이를 실제 내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또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내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일은 단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지만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내가 내 목표에 도달하는 일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내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내 사랑을 갈망하고, 내가 이제 그들에게 성취가 될 때까지 쉬지 않는다. 내 사랑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기에 따라 짧거나 긴 시간 내에 이일을 성취시킬 것이다.

아멘

깨달음의 중요성.

B.D. No. **8034**
1961 년 11 월 6 일

내 자녀인 너희에게 나는 항상 또 다시 말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길을 위해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내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도달하면,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있기를 갈망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재 함을 너희는 항상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 하면, 내 능력은 너희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만 한다. 너희의 혼이 성장하기 위해 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허용하면, 너희는 항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한다. 항상 너의 안에 비추어 지는 빛을 밝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항상 깊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각이 선명해지고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진 것을 의미한다.

내 음성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보장한다. 왜냐면 나로부터 너희에게 흘러 들어가는 능력이 역사해야만 하고 증가하는 지혜를 통해 자신을 증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 모두가 빛을 갈망해야 한다. 너희는 영의 어두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영적인 지식이 증가되길 갈망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어떠한 무지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시작하는지 아느냐? 너희의 이성이 일하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이성으로 영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영역은 너희에게 깊은 어두움으로 남는다. 너희가 이에 관해 설명 받기를 원하는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는 모든 영적인 개념을 너희가 해석할 수 없고 선명하지가 않게 된다. 이런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단지 세상을 향한 목적만을 가지고 빛이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너희는 만족하느냐? 이런 빛이 없는 상태는 축복된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이 상태를 스스로 부족한 것으로 느껴야만 한다. 그리고 내면의 빛을 받기를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부족한 상태가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관해 설명을 해주는 지식이 주어지면, 너희는 내면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

너희는 이런 빛을 갈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으면, 내 종을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해야 한다. 왜냐면 이런 지식이 너희가 육신을 입을 초기에 부족했던, 그러나 켜질 수 있고 너의 심장 안에서 밝게 빛날 수 있는 빛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빛은 영원으로부터 내 일부분으로 너희 안에서 잠을 자고 있고 너희 스스로 사랑을 통해 불지펴야 하는 작은 사랑의 불씨에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제 또 한 너희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진리를 줘야만 한다. 사랑의 삶의 효과로서 너희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깊은 지식이 줘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의 불이 지혜의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밝게 돼야만 한다. 영적인 어두움은 사라져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연관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나 자신과 내 역사와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설명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한다. 왜냐면 이제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내 의지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말한다.

깨달음의 정도는 혼의 성장의 결정적이다. 왜냐면 내가 학교 교육하듯이 전달이 된 죽은 지식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깨달음 하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지식을 말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관해 말한다. 이 지혜는 단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지혜는 단지 영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전해질 수 있고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밝은 빛이 비추어 지게 허용하는 심장이 영접할 수 있다.

단지 사랑이 지혜를 주고 단지 사랑이 지혜를 받는다. 반면에 같은 지식이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은 지식으로 남게 된다. 너의 모든 너희 안에 빛이 비추어 지게 추구해야 한다.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다시 원래 초기처럼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되기 위해 너희 모두가 도달해야만 하는 밝은 빛의 상태에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다.

아멘

겉보기에 사랑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

B.D. No. **5256**
1951 년 11 월 18 일

나는 혼의 위험에서 너희를 구하기를 원한다. 육체의 고통은 지나가고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혼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에서 이어지고 혼이 영의 나라에서 비로소 제대로 의식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쾌락과 기쁨으로 혼의 고통을 마취시키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의 시간을 혼을 돕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이 불행이고, 너희가 육체가 죽은 후에 혼이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살고 말할 수 없게 고통

을 겪게 되는 혼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 불행이다. 나는 혼이 이런 고통을 벗어나도록 돕기를 원하고, 내 도움은 항상 몸에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내 도움을 통해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이 민감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해야만 하고, 너희의 이 땅의 안락한 삶을 방해해야만 하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너희가 혼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깊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너희의 습관이 된 삶에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개입을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상처 위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 자녀인 너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런 수단에 의지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런 일로부터 유익을 얻고 너희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너희를 구할 지는 너희의 자유이다. 내 모든 수단은 또한 성공하지 못한 채 머물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세상을 바라보고 단지 세상을 요구할 수 있다. (1951 년 11 월 18 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고, 너희는 자유의지로 끔찍하게 고통이 크고 끝없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운명을 택한 것이다.

나는 너희의 운명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이로써 너희가 자주 나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너희가 다시 나에게 방향하고 내 대적자에게 너희 자신을 드릴정도로 너희의 이 땅의 삶에 심하게 개입을 한다. 나는 단지 너희가 축복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영적인 죽음을 벗어나게 하고, 너희 혼에게 빛을 주어,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적응을 하고 더 이상 세상적으로 일하지 않게 하는 일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

혼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남아 있는다. 그러나 혼이 영의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혼은 자신의 생명을 기뻐하게 된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도록 돕기를 원하고, 항상 사람 편에서 저항을 받는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단지 외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하고, 그러나 자신의 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단지 겉형체를 중요시하고 핵심은 잊는다. 핵심이 유일하게 진정한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고, 이 핵심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이 커질수록 종말이 가까이 다가 온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를 통해 세상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쇠하지 않은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나는 자주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죽는 사람들의 몸은 아무것도 잃지 않지만 혼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아직 저 세상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써 내가 얻은 사람들은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고 또한 가장 큰 고난을 내 사랑의 수단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큰 고난이 없이는 영원히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구원 계획은 영원으로부터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구원 기간이 끝날 무렵의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보았고, 사람들의 혼에 대한 내 대적자의 통치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또한 아직 얻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았고, 모든 구원의 시대는 내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존재들을 구해내기 위한 강력한 공격으로 끝이 난다.

나를 믿는 너희는 경계하는 영으로 종말의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어디에서 실제 내 심한 도움의 수단이 역사하는지, 내 대적자가 어디에서 그의 손을 펼치는지를 깨달으라.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모든 세상의 고난과 모든 자연 재해 가운데 내 사랑을 깨달으라. 이런 일들은 항상 내 지혜가 아직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어 도움을 줘야하는 혼을 위한 일이다. 너희가 언젠가 나에게 저항하지만, 그들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혼들의 끔찍한 운명을 보게 될 때, 너희는 내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이 아직 존재하는 동안에는 혼을 끝없이 긴 어두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내 사랑은 끊임없이 노력한다. 내 대적자와 개선될 수 없는 내 대적자의 추종자들이 이런 어두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인내**.** 공의**.** 속죄**.**

B.D. No. **3524**
1945 년 8 월 26 일

사랑이 없는 행동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나의 인내심이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고, 나의 공의가 도전을 받고 있다. 인류는 죄 위에 죄를 쌓고 그의 끔찍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인류는 스스로 멸망을 가속화시킨다. 왜냐면 설정된 한계를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한계를 곧 넘어설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나의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곧 나의 의지가 그들을 방해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끔찍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악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사랑없음이 증가하고, 이로써 나와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영적인 입자가 전적으로 굳어지는 마지막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인 존재에게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입자가 전적으로 차가워지는 일은 굳은 물질에 둘러싸이고,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그의 의지와 반대인 나의 의지에 따라 행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이런 상태는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마지막 육신을 입는 동안 자신의 잘못된 의지를 통해 모든 사랑이 심장에서 사라지게 하거나 또는 단지 세상을 행함으로써 잘못을 행함으로 스스로 추구한 상태이다.

사랑이 나에게 향하지 않으면, 의지가 나를 떠나고, 나의 대적자는 사람들의 혼을 지배할 힘을 얻는다. 왜냐면 사람들의 의지가 나의 대적자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고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 심판 전의 모든 날은 사람들에게 변화될 기회를 제공하는 나의 은혜와 나의 위대한 사랑과 인내의 증거이다. 매일 당하는 아주 많은 고난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영적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변화되기에 아직 너무 늦지 않았고, 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아직 인내심을 발휘한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깨닫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나는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의지에 방해를 하지 않고, 언젠가 나의 의지로 그들을 대적할 것이고, 이 일은 또한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혜와 사랑이 함께 나타날 것이고, 그러므로 아직 성장 중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람이 이 가운데 나와 나의 권세

를 깨닫는다면, 축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랑없음이 한계에 도달하면 나는 사랑없음을 종식시킨다. 그러나 종말은 끔찍할 것이다. 왜냐면 나의 공의가 죄에 대해 속죄하도록 심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나의 훈계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넘치는 인내와 긍휼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직 제공되는 짧은 은혜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심판의 날. 종말의 때의 악한 영.

B.D. No. **3657**
1946 년 1 월 15 일

말씀과 기록에 선포가 된 것처럼 심판의 날이 이 땅의 모든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를 끝낼 것이다. 종말의 때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마귀들과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공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선을 추구하고, 나를 깨닫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마귀들의 격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아무 것도 숨길 수 없게 될 것이고, 어떤 것도 거짓된 모습 아래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드러날 것이고, 나는 사람들의 삶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다.

모든 환난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이 비로소 시작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묶는 일이, 그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가장 굳은 물질 안에서 끝없이 긴 시간 동안 다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일이 그들의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의 악마들은 당분간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면 나와 나의 분노가 너무 심하고, 가장 심한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땅에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너무 깊게 타락했고, 이로써 내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창조를 하게 만드는, 영적 상태에 다시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다시 한번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얻으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창조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최후의 심판이 그런 과정을 위한 서곡이고, 동시에 나를 향한 저항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자유의지로 나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추구하는 혼들에게는 심판의 끝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이 분리되고, 파괴되는 과정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고, 모든 이 땅의 주민들이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먼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휴거시키기 때문이다. 즉 내가 이 땅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살아 있는 채로 이 땅에서 들어올려 평화의 장소로 옮기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웠다. 오늘날 너희에게 생명을 준 분의 공의를 믿지 않고, 조롱하고 놀리는 너희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시간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는 심판의 때를 두려워해야 하고, 이 때가 너희에게 저주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예고한 때가 항상 가까이 있음을 믿고 대비하라.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을 위해 아직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고, 또한 극도로 고통스럽게 될 마지막 과정이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종말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음을 깨달으라. 왜냐면 악마가 이 땅에서 분노할 때, 내가 그들의 존재를 끝내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마의 활동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모든 사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전혀 사랑이 없이 서로에게 해를 입히고, 서로에게 악마처럼 대하고,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을 통해, 악마가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는 곳은 나의 대적자의 나라이고, 내가 정한 마지막 날에 이 나라를 파괴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속했다는 증거인 사람들의 의지와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깨닫는 가운데 영원으로부터 마지막 날을 정했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긴급하게 외친다: 가까운 종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준비하라. 이로써 너희가 나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마귀에게 저항하라. 왜냐면 마지막 날이 너무 멀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 늦기 전에 너희에게 경고해주기를 원하고, 경고하기 위해 진리이고 영원에 영원까지 진리로 머물게 될 나의 말씀을 전할 일꾼을 너희에게 보낸다. 왜냐면 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자신이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B.D. No. **5983**
1954 년 6 월 23 일

마지막 심판도 그들의 마지막 이 땅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영들이 언젠가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과정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 영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무질서한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영들의 성장 정도에 알맞게, 서로 다른 형체를 부여 받는 것이다. 이는 내 깊은 지혜와 사랑에서 기초한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한 구원의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는다. 왜냐면 그의 공의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심판에 빠진 사람들에게 단지 유익이 되고, 그러나 보응이 되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죄도 또한, 이 죄를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린 분에게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속죄되어야만 한다. 이 큰 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보응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보응이 심판으로, 죄를 지은 죄인이 자유의지로 속죄의 선물을 거절함으로 자신이 죄를 속죄해나가야만 하는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 이뤄진다.

마지막 심판은 절대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내 공의가 나타나는 사랑의 역사이다. 왜냐면 전적으로 온전한 나에게서 이 공의는 없애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공의를 느끼게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죄인을 즉시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 지혜에 합당하지 않고, 이런 일을 통해 내 사랑이 깨달기 어렵게 된다. 나는 아주 오래참고, 인내심이 있다. 나는 심판 전에 사람들을 나를 위해 얻기 위해, 가능한대로 최대한 심판을 한 성장시대의 끝으로 미룬다. 나는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게 내 보호하는 손길을 둔다. 왜냐면 나는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내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돌아 오려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 내가 질서를 세울 시간이 오면, 겉으로 보기에 내 사랑이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이 얼어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내 사랑이다. 내 사랑이 사탄적인 상태를 끝내고, 내 대적자가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혼들을 깊고도 깊은 타락에서 구원한다. 나는 그들을 새롭게 묶어 다시 굳은 물질로 만들고, 성장과정에 다시 집어 넣는다. 이 심판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들에게,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내 사랑을 실제 더 많이 증명한다.

아멘

한 구원시대의 끝**.**

B.D. No. **3150**
1944 년 6 월 6 일

너희는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성장기간을 거쳐 왔고, 이제 완료하도록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있다.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은 성장기간의 끝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있다. 왜냐면 이 땅이 현재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고, 전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왜냐면 현재 이 땅에 사는 인류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이 땅의 형태가 쓸모 없게 되었고,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영적인 존재에게 새롭게 거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새 땅의 창조물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다.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한다면, 이 땅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끝없이 긴 성장과정이 실패한 영적인 존재에게 쓸모가 없게 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영적인 존재에게 저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비록 이 땅에서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세상에서 아직 성숙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구원시대가 끝이 나고 있고, 이런 일은 또한 저세상의 존재에게 부여된 성장할 기회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한 신성 깨닫게 해주는 종말의 때에 가장 큰 위험과 환난 가운데 사람들을 미리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종말의 때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저세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떠났고, 강팍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러므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기면서 모든 성장할 가능성을 빼앗기고, 그들 안의 존재들은 굳은 형체 안으로 새롭게 묶이게 된다. 존재가 가야만 하는 끝없이 긴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아는 분이 단지 이런 과정의 의미를 측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 자신의 성장과정을 알게 되기 까지는 그는 비슷하게라도 이런 과정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아주 충분하게 정해진 구원을 위한 시간을 받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고, 더 멀어지기 위해 사용했다. 그런 존재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 성장이 없이 단지 계속하여 퇴보하고, 그의 끝은 굳은 형체 안으로 파문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제 너무 무지하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그들은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낙후가 어디로 인도하는 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단지 이 땅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끝내야만 하고, 인류에게 강제적으로 이런 상태의 종말에 대해 알려줘야만 한다.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을 받는다. 즉 이 땅과 이 땅의 거주자들이 전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땅의 겉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형성이 되고, 사람들도 그들의 모든 겉형체의 변화를 겪게 된다. 영적인 존재의 육체인 겉형체가 사라지고, 굳은 물질이 이제 다시 영적인 존재를 감싸게 된다. 이런 일은 영적인 존재가 모든 의지의 자유를 빼앗기고, 이제 끝없이 긴 기간동안 다시 묶이게 되는 일이다.

비록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알려줄지라도, 그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의 사랑 없는 삶을 통해 완전한 영적인 밤에 빠져 있고,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단지 사랑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영이 눈이 멀고, 그는 어떤 가르침도 받아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훈계하고 경고한다. 만약 그들이 시대와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설교하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도 당혹스러워 하고, 이런 징후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그들 자신에게 사탄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거부할 수 없게 종말이 온다. 왜냐면 짧은 시간 내에 구원시대가 끝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일찌기 죽는 일.

B.D. No. **5433**
1952 년 7 월 9 일

사람들을 마지막 타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나는 아직 큰 긍휼을 베풀고 많은 은혜를 줘야만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일찌기 불러들여야만 하고, 특별한 위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다가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자에게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땅에 큰 애도가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애도해 하는 사람들의 삶을 마치게 하는 일이 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사랑의 역사를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곧 끝날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인간의 충동에 대해 알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이런 사람을 살아 있게 놔두면 확실히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누구에게 저 세상의 나라에서 아직 성숙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안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인내로 너희의 혼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종말의 때까지 구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사람에게 마지막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그가 영의 영역에서 아직 생명을 깨어나게 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멸망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잘 안다는 것을 믿으라.

내 사랑은 절대로 그치지 않고, 이 땅의 내 자녀들의 영적인 위험이 커질수록, 너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 사랑과 긍휼이 더 많이 나타난다. 나는 너희의 멸망을 원하지 않고, 너희의

성장을 원한다. 나는 너희가 어두움 속으로 가라 앉는 일을 원하지 않고, 너희가 빛이 있는 높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한다. 너희가 모든 피조물을 포용하는 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직 너희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진실로 종말의 때에 행한다. 나는 싸우지 않고 너희를 내 대적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단지 사랑으로 내 대적자를 대할 수 있고,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아주 끔찍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너희가 피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불러 드린다.

너희 사람들은 종말의 때까지 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순수한 악마들과 마주하는 곳에서는 이런 내 은혜와 긍휼도 거절을 받고,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를 정하게 된다. 왜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일찌기 불러드리면, 그들이 쉬지 않고 깊은 곳을 추구하고, 언젠가 파문을 받는 길을 가야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의 나라에서 성장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파문은 영적인 존재들의 저항이 꺽이고, 그들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영적인 존재들의 거처가 항상 굳은 물질이 되는 굳은 물질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이런 파문은 이 땅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내 긍휼과 은혜가 아직 너희를 이런 운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종말이 임하기 전에 아직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많은 죽는 일에 대한 설명. 저세상의 문이 잠김.

B.D. No. **7170**
1958 년 7 월 21 일

혼들이 저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오랜 기간동안 닫힌다. 이 일을 단지 한 구원시대가 끝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만이 인간으로써 의지의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깊은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새 땅의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을 새롭게 가야만 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말이 오기까지 저세상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 이 땅을 떠난 존재들이 아직 저세상의, 영의 나라의 영접을 받는다. 그들에게 어두움을 벗어나 빛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아직 있다.

이 가운데 그들이 저세상에서 깊은 곳으로 빠져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만 하게 되지 않게 그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 성숙하지 못한 이 땅의 종말의 때까지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유지하여 그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름받으면, 이는 아주 큰 은혜이다. 현재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데 무관심하고 그럴지라도 사탄의 무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종말 전에 그에게 아직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장 정도를 적게라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주기 원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찍이 불러들인다. 왜냐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에게 구원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돌이킬 수 없게 끝나기 때문이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단지 희귀하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도 영들을 분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에서도 아직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머물고 있다. 그

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시도가 헛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은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에서도 열심히 구속하는 일이 일어난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다시 말해 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게 강요받지 않는다. 구원 가능한 혼들을 아직 구원하기 위해 모든 시도가 이뤄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번 구원시대에 작은 빛이라도 영접할 수 있게 모든 혼들을 돕기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대적자의 손을 벗어나게 해야 하는 전적으로 대적자의 손에 빠진 혼들이 당하는 끔찍한 운명을 피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혼들의 운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이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해 불러들이면, 이를 통해 어떠한 위로를 얻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이 일이 혼들이 끔찍한 운명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혼들에 대한 긍휼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혼들은 저세상에서 아주 도우려는 빛의 존재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빛의 존재들은 그들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혼들이 깊은 곳으로 다시 빠질 위험을 벗어나고 이로써 다시 한번 이 땅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종말과 함께 영의 나라에서 영접받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날에 데려갈 작은 무리를 제외하고는 단지 사탄을 향한 사람들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말을 체험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 왜냐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멸망받을 필요가 없는 희망의 빛줄기가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속죄를 요구한다.

B.D. No. **7625**
1960 년 6 월 18 일

죄인의 모든 불의는 속죄해야만 한다. 내 공의가 이런 속죄를 요구한다. 이 죄는 이 땅이나 또는 저세상에서 해결돼야만 한다. 혼이 이 땅에서 지은 죄짐을 지고 저세상에 들어서면, 이 죄를 해결하는데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원죄를 저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

왜냐면 원죄가 너무 커서 이 땅에서 든지 저세상에서 든지 존재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이 아직 원죄의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혼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대가를 치르게 요구받고 이런 죄를 위해도 혼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고통이 충만한 운명을 견뎌야만 한다. 왜냐면 내 공의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끝 없는 사랑이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겼다. 이 사랑이 죄짐을 해결했다. 이 사랑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 사랑이 죄짐을 지고 있는 인류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이 사랑이 원죄를 해결하여 만약에 혼이 세상의 육신을 벗으면, 혼은 진실로 구속을 받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단지 사랑이 완성할 수 있는 긍휼의 역사를 통해 속죄했다. 이로써 가장 큰 죄인도 만약에 그가 구속을 영접하면, 그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가와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속사역의 영역 밖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인류의 죄짐에 대한 속죄로써 내가 피흘린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가 한때 영원 가운데 어떤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될지가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면, 너희를 너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상상하면, 영원히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 그러므로 영원히 영원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거해야만 함을 생각하면, 만약에 너희가 단지 예수 안의 나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면, 너희가 너희의 죄짐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예수 안의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이제 비로소 구속사역의 큰 의미를 측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속죄해야만 한다. 너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너희는 만약에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면, 나 자신의 겉형체로 섬긴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하면, 너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구속을 받고 축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하길 원했고 단지 모든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인간으로 고통당하고 죽은 자신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사랑으로 자신의 피를 흘린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너희의 길을 그에게 향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단지 너희의 영적인 위험 가운데 너희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 죄를 고백하고 너희가 너희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속죄받고 저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그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는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죄짐을 해결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내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속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나면, 너희에게 피할 수 없게 될 너희가 짊어졌어야만 하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었다.

너희는 실제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구속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멀고 어려운 길이다. 너희는 자주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빛의 나라의 문이 닫혀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축복될 수 없다.

아멘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과정은 영적인 존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한 동안에는 지속이 된다. 그러므로 같은 긴 기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존재가 스스로 저항하는 정도와 구원받으려는 의지를 통해 이 기간을 정한다. 그러므로 구원 과정이 끝나기 전에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흐를 수 있고, 여러 차례의 구원시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한 구원시대로 충분할 수 있고, 이런 일은 영적인 존재가 스스로 자원하여 의식적으로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원받기 위해 추구하면, 가능하다.

영적인 존재가 한 구원시대 안에서 일찍이 또는 늦게 마지막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왜냐면 이 일에서도 묶임을 받은 상태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비록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그의 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는 특정한 활동을 수행해야만 하고,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서 싸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특정한 활동을 자원하여 행할 수 있고, 스스로 묶임을 풀기 위해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묶임을 받은 가운데 이뤄지는 그의 성장 과정에 오랜 기간이 걸릴 필요가 없고, 그는 자유의지로 마지막 단계에 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이제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사랑과 자유의지로 섬길 준비가 되었는지 또는 하나님께 저항함으로 다시 퇴보할지를 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전의 단계에서 빠르게 성장한 존재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구원 과정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저세상에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장과정을 지속해 나가야만 하고, 그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 세상에서 다시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그가 또한 덕 깊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의지가 묶인 가운데 창조물들을 거치는 과정을 가야만 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존재에게 두 번째 구원시대가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언젠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또한 여러 차례의 구원시대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강한 저항을 지속하는 영적인 존재는 그의 구원을 위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존재는 굳은 물질 안에 갇혀 있고, 의무의 단계에서 그의 성장을 위해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이미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도 언젠가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면 다시 정체하거나 퇴보할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또는 남김 없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원시대가 많이 흘러갈수록,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항상 적어진다. 이런 일을 이 전의 끝없이 긴 포로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아직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이런 일은 인류가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이 전의 그들의 끝없이 긴 기간 동안의 저항에 대한 댓가로 강력한 싸움을 견뎌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편에서 주는 아주 강한 힘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주 큰 사랑으로 영적인 존재들을 목표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돕는다. 그러나 실패한 영적인 존재는, 저세상에서 성장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피할 수 없게 성장과정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저세상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 정도에 더 이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재가 오히려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이로써 깊게 타락하여, 단지 가장 굳은 물질 안으로 묶임을 받는 일이, 의무의

상태에서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가는 일이, 존재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로 인해 생긴 완전한 무기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를 목표로 이끌기 위해 여러 번의 구원시대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판단에 따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의 시간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반복적인 이 땅의 과정을 거치는 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성장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장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항상 그리고 특히 종말의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위해 부여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어나는 일의 근거가 되고, 단지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구원하는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따라 새로운 성장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멘

지옥의 개념. 새로운 파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B.D. No. **6638**
1956 년 9 월 7 일

타락한 피조물도 내 사랑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타락한 피조물이 자신을 나와 내 원래의 성품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 더 먼 길을 가야만 할지라도 언젠가 타락한 피조물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내 돌봄은 줄어들지 않는다. 즉 내가 타락한 피조물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한다. 그러나 간격이 자주 너무 커서 대적하는 세력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고 내 사랑의 비추임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타락한 피조물이 나에게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오기까지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타락한 피조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지옥을 말하면, 지옥은 저세상에서 타락한 피조물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이미 마쳤고 저세상에서 계속하여 더 깊게 타락한 피조물들이다. 왜냐면 그들이 새롭게 내 대적자에게 복종했기 때문이다. 항상 새로운 구원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새로운 파문이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시작되기 전에 이런 존재들은 사탄의 추종자로써 그들의 가장 악한 정욕에 몰두하는 영역에 거하게 되고 서로 간에 대적하고 이로써 항상 싸움과 분쟁이 있고 연약한 존재들을 항상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드리려고 시도하는 영역에 거하게 된다. 그들은 내 대적자의 사명을 받아 모든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이 그들을 항상 더욱 타락하게 만든다.

지옥은 제한 된 장소가 아니고 깊게 타락한 존재들이 모여 서로 간에 분노하고 있는 모든 곳이 지옥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악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간에 원수를 맺고 모든 방식으로 불행한 일을 일으키는 이 땅을 지옥이요 지옥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이런 모든 존재들은 내가 긍휼이 여기는 내 피조물들이다. 나는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내 대적자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전적으로 모두 나에

게 거역했던 자의 영향 아래 있고 또한 그에 의해 창조 된 모든 존재들도 나에게 거역했고 이로써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자의 영향 아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자녀들이다. 왜냐면 내 힘이 제한이 없게 내 대적자에게 흘러가 비로소 그에게 이런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내 힘이 그들이 생성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피조물들이 아직 깊이 타락한 가운데 머물지라도 그들은 내 사랑에 속해 있다. 이런 깊은 타락이 이제 왜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깊고도 깊은 곳의 불행한 피조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끝없이 기간 동안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 주기 원하고 그들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새로운 형태 안으로 다시 묶기 원한다. 이로써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하고 아직 가장 강한 크기로 나를 향한 그들의 저항이 서서히 줄게 한다.

타락한 자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이 사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창조물들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새로운 파문을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내 사랑을 증명해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하거나 그들의 귀환을 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선포한대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비록 너희 사람들이 이 가운데 사랑을 전혀 볼 수 없을지라도 단지 사랑이 우주 안에서 행하는 내 사역과 역사를 정한다. 너희는 언젠가 내 구원계획을 이해하고 밤과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냈고 나 자신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존재들을 돕는 나에게 찬양을 드리며 감사할 것이고 내 대적자가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도움을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돕고 모든 존재가 축복받게 해주기 원하는 나에게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다.

아멘

영적인 죽음으로 인한 새로운 파문.

B.D. No. **7591**
1960 년 4 월 30 일

영적인 죽음이 물질 안으로 파문을 가져오게 한다. 죽음에 빠져 죽음 가운데 머무는 영적인 존재는 서서히 다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굳은 물질 안으로 들어가 태어나야 한다. 영적인 존재 안에 아직 작은 불씨만큼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존재에게 계속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은 존재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비록 영원한 시간 후에 비로소 일어날 지라도 서서히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가 전적으로 굳어지고 존재가 항상 계속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저세상의 많은 혼들이 이런 일을 스스로 허용한다. 그러면 이런 존재의 영적인 입자는 다시 굳은 물질 안으로 이 땅의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 태어난다.

존재는 다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극심하게 고통이 충만한 길을 가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저조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항상 더욱 깊은 곳을 추구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을 어두움의 권세자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고 스스로 그의 추종자로써 극심한 어두움 속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혼을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로 분해하여 다시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 태어나게 하는 일이 필요한다. 그들은 다시 생명으로 깨어나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형체의 변화를 통해 성장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런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도달했고 종말의 때에 영적인 죽음은 강하게 나타난다.

이 땅에서 뿐만아니라 저세상에서도 각각의 생명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을 강하게 하고 죽음에 빠지지 않게 막기 위해 아직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다시 형체 안으로 파문을 받으면, 존재가 이제 다시 당하는 일은 끝이 없는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이런 가장 깊이 타락한 존재에게도 임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를 피할 수 있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써 자유의지가 그에게 대항하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물질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실행돼야만 한다. 사람이 이에 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영적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진실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관한 지식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언젠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나"는 소멸되지 않고 너희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장소에 거할 것이다. 단지 죽음의 상태에서 자신을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묶임을 받은 것을 고통으로 느낀다. 왜냐면 존재는 원래 자유로운 영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존재는 자신의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 왜냐면 존재는 자유의지로 죽음의 상태를 선택했고 이제 그의 의지에 합당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축복된 상태이고 묶임을 받은 상태는 고통의 상태이다.

인간으로써 존재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정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그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게 해 죽은 자가 언젠가 다시 생명으로 깨어날 수 있게 다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를 도와 너희가 인간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때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에게 향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곳까지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다시 높은 곳으로 가게 도와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가 다시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돌려받아 초기의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꿔야하는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아주 특별하게 역사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에 간섭을 받지 않고 존중받는다. 이런 자유의지가 존재가 자신의 겉형체를 최종적으로 벗게 할지 또는 자신의 형체를 굳게 만들어 존재가 다시 굳은 물질 안으로 들어가게 할지 결정한다. 그러면 존재는 영적인 죽음에 빠진 것이다. 존재가 새롭게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를 받기까지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한다.

아멘

영적인 죽음은 혼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이다. 왜냐면 혼이 이 땅을 떠나면, 스스로 영적인 죽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존재하고 자신을 의식하지만 전적으로 능력과 빛이 없다. 이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만약에 사람편에서 효과가 충분하게 중보 기도하여 혼이 이를 통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지 않으면, 혼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어떠한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물질 안으로 파문을 다시 받게 한다.

혼이 이런 상태에 무감각하면, 빛이 충만한 영의 세계에서 또는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은 아주 강퍅해져 분노에 불타오르는 가운데 그가 믿는 것처럼 자신을 가두고 있는 권세에 대적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항상 더욱 깊은 곳으로 빠지고 강퍅해져 굳은 입자가 된다. 그러면 저세상에서 성장은 불가능한다. 그러면 혼은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의 길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한다. 왜냐면 언젠가 이 혼도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죽음에 빠질 위험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면 그들은 종말의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이 없이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산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물질로 강퍅해져 있다. 왜냐면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혼에게 만들어 줘야 할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질적인 세상의 주인에게 빠져서 그의 재물을 추구한다. 그의 재물은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재물은 혼에게 확실하게 영적인 죽음을 준다. 그들이 이런 사랑이 없는 상태로 저세상으로 가면, 그는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를 사랑하는 생각을 영의 나라로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친구를 희귀하게 두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의 생각만이 혼을 구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랑하는 생각은 모든 사랑이 충만한 기도는 이런 혼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혼이 변화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역사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한 죽음을 벗어난다.

그러면 혼은 혼에게 새롭게 파문을 받게 하는 상태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모든 사람은 사랑의 힘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생명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랑이 없이 살면, 너희 혼의 영적인 입자가 결국은 강퍅해질 것이고 혼은 비참한 상태에 처할 것이다. 왜냐면 죽음은 그 자신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그러나 고통이 충만한 무기력과 어두움 가운데 근근이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는 이 상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왜냐면 이 땅에서 피하는 일이 너희에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는 항상 사랑의 역사를 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면, 죽음의 위험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생명으로 깨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극복한다. 너희 모두는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단지 이 불씨에 불을 지피면, 절대로 이 불을 꺼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항상 새로운 능력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안의 이런 사랑의 불씨를 한번 타오르게 하면, 너희는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게 강요받을 수 없고 단지 너희가 영적인 죽음의 끔찍함을 알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동인이 되어 이런 끔찍함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도움에 의존한다.

너희는 이런 도움이 사람들로부터 너희에게 행해지면, 그들의 사랑하는 생각이 너희를 뒤따르면, 너희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다. 단지 사랑이 구속한다. 단지 사랑이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능력을 얻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B.D. No. **7279**
1959 년 2 월 10 일

내 사랑과 긍휼이 한 존재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한 존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는 것을 한 존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은 없다. 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인 내 대적자도 이제 한때 다시 내 영접을 받을 것이고 때가 되면, 최고의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한번 자기에게 저항한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지 않고 타락한 자들을 세우려고 시도한다. 그는 타락한 자를 깊은 곳에서 높은 것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한다. 그는 길을 잃은 자가 다시 자기에게 향하는 길을 자기를 원하고 길을 잃은 자는 언제든지 사랑이 충만한 그의 영접을 받는다.

왜냐면 내가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때 타락한 내 피조물들과 나와의 격리 된 상태는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상태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나와의 긴밀한 연합을 모든 존재들이 다시 이룰 것이다. 그러나 격리의 기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기간이 될 수 있다.

존재는 실제 영원한 기간 동안 나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이로써 그는 불행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존재 자신이 나를 떠나 있는 기간 동안을 정한다. 그러므로 존재가 스스로 지옥

의 상태를 만든다. 왜냐면 내가 존재가 한때 지은 죄짐 때문에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 자신이 멀리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나와의 간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 스스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원래 초기에 나에 의해 자유롭게 창조되었고 그가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언젠가 다시 자유의 상태에 돌아온다. 존재는 나에게 귀환을 이뤄야만 한다. 그가 다시 진실로 행복하고 축복된 존재가 되기 원하고 내 의지로 그가 원하지 않은 한 곳에 세워둔 인형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그 자신이 만든 상태를 스스로 끝내야만 한다.

존재가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그는 죽음의 상태에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잃었던 생명을 그에게 다시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내 뜻으로 머문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무자비한 심판관으로 여기게 하는 영원히 나로부터 격리시키는 끔찍한 벌을 죄의 대가로 주는 저주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내 성품은 사랑이다. 바로 죄악 된 피조물들도 여전히 내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면 내 원래의 성품이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항상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절대로 벌주거나 파문시키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내가 내 사랑으로 창조했고 비록 그들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내 사랑을 항상 영원히 소유하게 될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옥에 거하면, 그들이 진실로 사탄적인 생각으로 무리를 지으면, 내 사랑은 그들을 아직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이 아직 속해 있는 내 대적자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

나는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해 그들을 그들의 주인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모든 일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일은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이 의지가 너희가 나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시간을 자주 영원한 기간까지 연장시킨다. 그러면 너희 사람들이 배운 대로 너희는 "영원한 멸망"을 믿을 만하게 여긴다. 너희는 항상 중단되지 않는 내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원수와 대적자에게 영원히 맡겨 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어디든지 간에 뒤따르고 자녀에게 항상 아버지 집의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의가 자녀가 이 길을 스스로 가야만 하게 정한다.

왜냐면 존재가 이 길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공의가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아버지에게 용서해주기를 간청하고 멀고 어려운 귀환하는 길을 가는데 도와 주기를 간청하게 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이런 자녀를 도와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마중 나가고 그의 귀환하는 길을 짧게 해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에게 자유의지를 보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녀들의 가까이 가기를 구하고 그를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의 가까이를 구하는 일에도 그에게 자유의지를 보장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내 자녀와 격리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의 사랑이 나에게 향해야만 한다. 그러면 진실로 자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고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축복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 존재하지 않는 것과 구속받지 못한 존재.

B.D. No. **1137**
1939 년 10 월 15 일

하늘과 땅의 창조주는 모든 자신의 피조물들과 떨어질 수 없게 연결이 되어 있고, 힘의 공급이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힘은 모든 창조의 작품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항상 최고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 존재는 전적으로 그의 창조주인 생산자와 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 존재가 현혹된 생각 가운데, 자신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자기가 의존되어 있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존재는 창조주의 힘의 공급을 받아야만 한다. 한 권세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이 권세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가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이는 단지 그의 의지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그의 생각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통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리는 불가능하다. 단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존재가 영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고,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동시에 이미 극복하였던 형체 안에서 자신이 묶임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자신과의 간격이 줄어드는 대신에 끝없이 커진다. 이러한 후퇴는 동시에 영원한 멸망이다. 왜냐하면 이는 존재에게 끝없이 긴 기간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는 없고, 단지 구속되지 못한 존재만이 있다. 모든 존재가 구속을 위한 길은 갈 수 있다.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일을 추구해야만 한다. 존재가 단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존재를 자기 자신에게 이끌어 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저항하는 의지를 만나고, 자신의 사랑이 영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을 중단한다. 그럴지라도 그가 이 땅의 길을 마치지 않은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는 일은 이 전과 같이 보장이 된다.

저항했던 존재는 저 세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럴지라도 강퍅함이 아주 커, 모든 도움을 거부한다면, 끝없이 깊은 곳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존재가 다시 포로가 되는, 다시 굳은 물질 안으로 들어가는 낮은 곳을 향한 길을 가고, 마지막에 가서 영원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리를 극복할 때까지, 다시 영원한 기간 동안 높은 곳을 향한 성장과정을 가야만 하는, 낮은 곳을 향한 길을 간다.

아멘

내 나라에서는 빛을 계속해서 받아드리고 빛을 발산한다. 빛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넘치게 임하여 빛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축복한다. 그들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복은 또한 그들의 사랑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빛의 존재들은 지속적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활동은 나로부터 받은 빛을 비추는 일이다. 왜냐면 그들은 어두움의 고통을 알고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혼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어두운 영역으로 빛을 비추고 그들은 단지 어두운 영역에서 빛을 원하고 자원하여 받아드리는 혼을 찾아야만 한다.

모든 자원하는 혼은 빛을 받고 나는 혼 자신이 빛이 되기 원하는 일 외에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혼에게 직접 또는 나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빛과 사랑의 일꾼을 통해 충분하게 빛을 제공한다. 혼들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거할지라도 빛을 향한 그들의 갈망은 항상 충족되고 이런 일은 이미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한다. 왜냐면 내가 끊임없이 돌보는 일이 깊은 곳에 거하는 혼을 해방시키는 일이고 빛과 축복이 있는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자원하는 혼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혼이 깊은 곳에 거하게 놔둔다고 믿느냐? 너희는 내가 혼을 고통을 당하게 놔두고 혼이 어두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내가 혼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믿느냐? 너희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에 대해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은 화가 분노하고 벌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르침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왜냐면 내 공의는 너희 혼의 상태에 따라 너희에게 고려해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 혼의 상태는 자주 너무 끔찍해서 너희가 단지 가장 깊고도 깊은 곳에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너희를 이런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내 사랑은 또한 너희가 단지 나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런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저항하는 일은 나를 막는 일이고 내 사랑이 혼에게 접근하는 일을 막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항을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에게 이제 내 사랑의 광선이 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에게 빛이 풍부하게 흐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영원히 끝나게 된다. 너희는 이제 내가 영원한 저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런 구원을 위해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들이 너희를 깊은 곳에 가둬야만 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런 죄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고 어떤 존재도 이런 희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옥을 벗어나기 원하는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는 내 대적자가 이런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대적자가 내 십자가의 희생의 축복에 도달하는 일이 그의 뜻이라면, 그가 내 십자가의 희생의 축복에 들어갈 수 없

다고 실제 믿느냐? 그러나 그가 아직 나에게 분노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너희들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 인류가 이 땅의 창조물의 해체를 필요하게 만드는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일이 그의 의지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가 아직 나에게 가장 강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가 나에게 돌아오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는 전적인 오류 가운데 있고 그가 시도하는 모든 일은 단지 자신이 잃을 것으로 믿는 혼을 얻으려는 의도로 행하는 일이다. 나는 진실로 그의 의지의 변화를 특별한 내 사랑의 비추임을 통해 지원할 것이고 첫 번째로 타락한 존재의 구원역사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점은 아직 끝 없이 멀리에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그를 얻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어떤 존재도 영원히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한 저주는 없다.

B.D. No. **6155**
1955 년 1 월 5 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없다. 영원한 저주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런 일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를 돌보고 존재가 아직 깊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존재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에서 나온 존재를 영원히 자신의 대적자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존재 자신의 뜻이다.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에 의한 정죄라고 말할 수 없다.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런 일은 존재 자신의 잘못이고 존재 자신의 의지이고 존재가 언제든지 이런 간격을 줄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왜냐면 존재 자신이 단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존재가 스스로 불행한 상태를 만들고 이런 불행한 상태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존재에게 빛과 힘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이다. 왜냐면 존재가 빛과 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없이 죽은 존재가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게 위해 항상 노력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온전함에 기초한 그의 영원한 질서인 법을 지키는 가운데 존재에게 힘과 빛을 발산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러므로 존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기간이 무한하게 길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 영원을 단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된 존재에게 항상 자신의 불행한 상태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끝내는 일이 절대로 그 자신에게 맡겨져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항상 구원받을 가능성들이 제공되고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는 일은 항상 그의 자유의지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용서하지 못하지 않고 항상 돕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고 축복되게 해줄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고 존재가 항

상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한때 생명으로 부른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피조물들을 절대로 전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빛과 힘의 근원에 자신을 닫는 존재에게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고 힘으로 충만한 생명을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유의지는 모든 신적인 존재의 특징이고 자유의지를 없에는 일은 존재를 신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영원히 온전하지 못하게 놔두는 일이다. 그러므로 불행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영원히 불행한 상태로 놔두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마련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갖게 놔두셨다. 이로써 존재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갈망할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아주 강해 자신에 의해 생성 된 모든 존재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B.D. No. **5593**
1953 년 2 월 2 일

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을 어두움 속으로 밀어 내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깊은 곳을 추구하고,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두움의 권세자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을 어두움의 권세자의 영역으로 끌려들어 가게 하는 방식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모든 혼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냐면 내 원칙은 한때 나에게서 나온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위험과 그들의 불쌍한 상태를 보고 그들 모두를 돕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을 돕도록 허락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는 그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굳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의 의지가 내 대적자에게 그렇게 할 권리를 주지만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그들의 의지가 나에게 그들을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도울 권리를 부여한다.

나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보상과 속죄를 요구해야만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도 죄짐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모든 죄인들이 그들의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속죄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활용할지는 모든 혼의 자유이다. 왜냐면 내가 혼에게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자유의지가 혼을 멸망에 빠뜨리고, 가장 끔찍한 감옥과 같은 아주 고통이 충만한 상태로 빠지게 한다. 혼은 내가 그에게 이런 상태를 준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혼은 나를 자신을 어두움 속으로 쫓아내고 복수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여긴다.

혼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 왜냐면 혼이 어떠하고, 혼이 어디에 거하는 지는 혼이 자유의지로 추구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는 단지 자신의 의지를 통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이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면, 이런 상태가 즉시 개선이 된다. 내 사랑은 모든 혼을 붙잡고,

혼이 높은 곳의 나를 추구하면, 혼이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나는 실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한때 나에게 반역한 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요구하는 일은 단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일이다.

한때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서 돌이켜 타락한 것처럼, 그가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다시 향해야 한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를 보상하는 일을 쉽게 해주기 위해,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자원하여 나를 떠난 영적인 존재들이다. 내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깊은 곳을 추구했고, 내가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자유의지와는 반대로 그들을 다른 영역으로 옮길 수 없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머물 것이다. 내 공의조차도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의해 정복을 당한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길을 구했고, 피조물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조물들이 자신에게 다시 다가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내 사랑은 자신을 잃은 혼들을 깊은 곳에서 구원하기 위해 영원히 노력할 것이다. 내 사랑은 영원히 그런 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이다. 혼들은 깊은 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단지 이런 도움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나는 벌을 주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고, 내가 한때 내 사랑에서 나온 존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떤 것도 영원히 구속되지 못한 상태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B.D. No. **8443**
1963 년 3 월 20 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혼의 성장 정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또 한 사람 스스로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간을 정한다. 다시 말해 사람 안으로 육신을 입은 혼인 모든 원래의 영이 거부할 수 없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어떤 긴 기간 동안에 혼들이 이런 귀환을 이루게 될지는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혼들이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된 온전한 존재로서 빛과 능력과 자유 가운데 내 옆에서 역사할 수 있기까지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귀환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면 이는 영원으로부터 원래의 법칙이고 나로부터 능력으로 발산되어 모든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영원에 영원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시간 간격을 측량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나로부터 계속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영원한 죽음은 없다. 너희는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사랑과 지혜와 권세인 내 성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지혜와 권세가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영적인 것이 최종적으로 귀환하게 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실제로 믿느냐? 또는 너희가 내 사랑에 제한이 있어 이 사랑이 단지 영원한 죽음의 상태의 존재들을 그냥 놔둘 것이라고 믿느냐?

너희는 심지어 내 대적자도 언젠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가 내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을 안다. 비록 이를 위해 아직 영원한 시간이 필요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내 면전에서 물리침 받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내 사랑을 갈망하고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영원히 구속되지 못한 상태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가장 굳은 물질도 언젠가 분해가 되어 포로였던 영적인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물질 자체도 서서히 영화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전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그의 출처는 나 자신이었고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강력한 효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에 합당하게 굳어져 있거나 또는 부드러워져서 그의 영화에 가까이 있고 그러나 언젠가 모든 물질들이 영화되는 일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나에게 대적하는 것도 더 이상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생각의 결과이고 위로부터 내가 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수정이 돼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절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가 항상 또 다시 침범해 너희는 오류로 인도하고 내 성품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게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내용을 바꾸게 만든다.

왜냐면 구속을 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히 그들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야만 함을 너희가 가능한 것으로 여기면, 내 끝없는 사랑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랑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고로 온전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온전하게 남을 존재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내 대적자는 진실로 살며시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 영의 역사가 이성의 생각을 통해 방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단순한 설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첨가를 하거나 삭제를 해야 하 만한다는 의무를 가진 것으로 믿을 때 항상 가능한 방해를 받으면, 대적자는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항상 행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변개시키는 일을 두려워했으면, 이런 오류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정확하게 내 말을 붙잡고 오류에 빠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새롭게 오류를 드러나게 해야만 한다. 나는 내 말을 위로부터 자유롭게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 줘야만 한다.

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너희의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러나 내 말씀으로 열심으로 주장하는 영적인 내용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모든 순수함으로 모든 진리로 이 땅에 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변경을 시키면 그는 내 방해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너희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순수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돌봐 줄 것이다. 너희 스스로 진리 안에 서기를 갈망하면, 너희는 모든 잘못 된 가르침에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잘못 된 가르침과 영원하고 최고로 온전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인정할 것인지 시험해 보는 것이 올바르고 가장 안전한 시험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면, 너희는 이 가르침을 잘못 된 것으로 거부할 수 있다.

나는 진실로 왜 영원한 멸망을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오류인지 너희에게 오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서 너희가 이제 이를 믿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확신할 수 있게 하고 너희가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진리 안에서 거하게 만들려고 한다. 왜냐면 진리만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밝혀 주는 빛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한 심판은 잘못 된 가르침이다.

B.D. No. **7910**
1961 년 6 월 4 일

너희가 나를 심장 안에 모시면, 너희가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긍휼을 알지 못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죄로 인해 영원히 너희를 저주한다고 믿지 말라.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단지 너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빠져 들어갔던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돕는다.

너희 자신이 너희의 죄를 통해 불행한 상태를 했다. 너희 자신이 너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깊은 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축복되게 될 수 있게 항상 또 다시 도울 것이다.

너희 자신이 악을 원했고 악을 너희에게 끌어들였다. 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고 불행한 상태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추구했고 행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면 너희가 그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고 그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항상 너희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랑은 너희에게 다시 축복된 운명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를 위해 비록 너희의 자유의지가 필요할 지라도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난 것처럼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무거운 죄를 스스로 지은 것처럼 너희는 자유의지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 초기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연결 된 가운데 넘치게 축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운명에 맡겨 두거나 너희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저주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 내 사랑과 긍휼로 너희의 죄를 위한 내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반론한다. 내가 한 때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면, 내 구속사역은 실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과 긍휼을 증거했다. 나는 나 자신을 희생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희의 죄짐을 위해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이를 통해 너희는 이미 영원히 심판한다는 가르침이 잘못임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내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반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므로 절대로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증명한다. 심판하는 하나님은 나와 내 성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나와 내 성품은 사랑이고 내 피조물이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빠졌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에 그들이 빠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다시 얻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졌다. 왜냐면 내가 모든 타락한 존재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조물로써 이 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 내 긍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로 나로부터 더 멀어 떨어져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불행하다. 만약에 그가 나 자신에게 의뢰하면, 그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며 이 사역을 자신을 위해 활용하면, 그가 스스로 멸망 받는 운명을 끝낼 수 있는 멸망 받는 운명을 택한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돕기 원하는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갈망하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려고 서있는 단지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자녀가 돌아오게 강요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할 때까지는 그의 운명은 축복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온전한 성품에 속한 공의가 너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된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제공 수 없다. 너희는 내 구속을 통한 너희의 죄의 속죄를 먼저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고백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린 사람들 무리에 너희가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진실로 더 이상 분노하는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향한 내 사랑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지은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속죄한 그가 너희와 다시 하나가 되고 그의 사랑의 힘을 너희에게 비추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축복되게 남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

B.D. No. **8042**
1961 년 11 월 18 일

내가 너희에게 선물하게 하라.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고 나는 항상 단지 베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열려진 심장 외에는

즉 나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으려는 의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넘치게 선물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선물할 것이다.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대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은혜를 충만하게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연약해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도움이 없이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높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온전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 너희는 내 일 부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나에게 자유의지로 너의 심장을 열고 나 자신이 너희를 소유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한 너희는 아직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의지와 갈망이 너희 안에서 살아나야만 한다. 이를 위해 너희는 힘과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면 너희는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이 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항상 너희가 내 사랑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너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한다. 나는 너희에게 계속하여 사랑의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제공자에게 향하게 하게 했다.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사랑의 선물이 너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단지 너희의 내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 심장을 여는 것이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으려는 자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너희의 스스로 그로부터 창조 되어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는 나에게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이미 나에게 향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너희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 말을 가까이 준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분과 연결이 되려는 갈망이 불타오르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생각으로 설명하거나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한 기록 된 문서를 전해주거나 또는 내가 너희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나는 모든 각 사람을 영접하고 그래서 사랑이 응답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영원한 사랑인 나와 하나가 되길 추구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심장에 사랑을 비추어 주기 원한다. 왜냐면 나는 나 자신을 항상 선물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창조물인 너희를 계속하여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내가 계속하여 너희가 응답하는 사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응답하는 사랑은 다시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음을 너희가 나로부터 아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너희를 뒤 따른다는 것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얻기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응답을 받는 사랑이 비로소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는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나에게 돌아오게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하여 너의 심장에 접촉을 할 것이다.

너희가 아직 너희 자신을 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내 사랑의 힘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복종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축복된 주는 일과 받는 일이 끝이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고 너희들도 다시 너희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계속하여 내 사랑으로 너희가 나에게 속하게 되고 영원히 속해 남을 때까지 뒤따랐기 때문이다.

아멘